

전남

영암 '매력한우' 브랜드 파워 높인다

정보리 사료재배 2천ha로 확대·대도시 마케팅 적극 강화

영암군, 한우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영암군이 전남지역 5대 명품한우로 손꼽히는 '매력한우' 육종 등 한우산업 발전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과 순천대 전남 친환경한우 특화산학협력단(단장 이상석 순천대 동물자원학과 교수)은 12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한우사육농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관의 긴밀한 협조와 고급육 생산기술개발, 조사료 자급확대 등 영암 명품한우 육종방안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사료비절감 지역농업특성화 추진방안(김배중

소장) ▲전남축산업 발전대책(박민수 전남대 농업기술원장) ▲영암한우 개량과 브랜드화방안(이재운부장 한국축종개발협회) ▲한우 번식우 개량과 최근 이용기술(공일근 경상대 교수) ▲영암지역 양질조사료 생산과 이용방안(임영철 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장) 등 다양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영암군은 그동안 영암지역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정보리 사료재배면적은 지난 2007년 305ha에 불과했으나 2008년 740

ha, 2009년 1천800ha로 6배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2천ha를 계획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정보리,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을 휴경지를 활용해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조사료로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매력한우'의 안정적인 판매와 브랜드파워 향상을 위해 영암 삼호읍 나불리 대불 국가산단 인근 등 영암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서울과 광주 상무지구, 품양동 등 대도시에 직판장 7곳을 개설했다.

군은 앞으로 우수한 밀소 송아지 확보와 더불어 영암 '매력한우'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안전성 등 품질차별화와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 5대 명품한우=광역브랜드인 동부권 순한한우, 서부권 녹색한우를 비롯해 영암 매력한우, 함평천지한우, 담양 대소맑은한우 등 고품질·안전성이 높게 평가돼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전남도 한우브랜드.

김일태 영암군수는 "사료 자급화를 위한 정보리 생산과 연결체 구성, 최첨단 사육시설 지원과 함께 고급육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지역에서는 1천200농가가 3만2천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규기자 lsh@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 청 장성군수

장성호~축령산 관광벨트 개발

"역동적인 지역개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청 장성군수는 새해 군정 목표를 '장성비전 2020년을 향한 새로운 10년출발의 원년'으로 정하고, 참여와 창의적인 행정으로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군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원년 ▲신성장 동

음식까지 도시가스 공급

력 창출 ▲도·농 교류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문화관광산업 육성 ▲함께하는 생활복지 행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우선 '탄소 제로의 청정한 녹색도시 장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녹색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촌생태마을과 산림소득사업, 편백나무 숲고를 셉프 사업을 추진해 녹색성장과 녹색생활환경조성으로 친환경 에코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물류 거점인 북화물터미널과 나노산업단지, 동화 전자능공단지 등 산업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장성읍 소



자매결연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퍼톤트리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축령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사업을 전개한다.

장성호와 축령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개발해 장성을 명실상부한 '에코-웰빙관광의 중심도시'로 각인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효과 관광사업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길동 축제'와 '산소

젊은 농촌지도자 양성

축제' 등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깨끗한 정성의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청 군수는 '근교지영(根校枝榮)'이라는 고사성어를 예로들며 "뿌리가 견고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며 "올해도 장성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 4기에 추진해 온 핵심사업이 하나씩 결실을 거두고, 미래 장성이 눈앞에 띄게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눈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2010년은 '2020년 친환경 선도시, 부자농촌 장성'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출발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운기자 yongho@

장흥 '햇참쌀이 하늘수' 친환경 막걸리로 선정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안양주조장에서 생산한 햅쌀 막걸리 '햇참쌀이 하늘수'가 농림식품수산부가 시행한 '햅쌀 막걸리 프로젝트'에서 친환경 햅쌀막걸리로 선정됐다.

막걸리에 햅쌀을 사용하면 맛은 묵은 쌀이나 수입쌀을 사용할 때보다 신선하고 산뜻하며 쌀의 산화방지 물질이 많아 생생한 우려가 큰 숙취 성분인 '퓨젤유'와 '메탄올'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그동안 밀가루와 수입쌀 등을 원료로 사용하던 막걸리 시장에 이번 '햇참쌀이 하늘수' 막걸리가 시판되면서 쌀 소비 확대 등 농촌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주조장을 운영하는 채창현씨는 "이번에 생산된 햅쌀 막걸리는 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조성이 마시던 전통 막걸리 본래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산본인 것"이라며 "하늘수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함께 남도 전통술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진 자연산 굴 '영양 만점 맛도 최고' 장진군 대구면 백사마을 주민들이 12일 마을 앞 바닷가에서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 있다. 굴은 칼슘·철분·구리 등 성분이 함유돼 빈혈예방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다. <장진군 제공>



고려시대 목선, 영산강에 다시 뜬다

시, 10세기 '나주선' 복원... 관광유람선 활용

고려시대 영산강에 오갔던 고대 목선이 다시 복원돼 관광유람선으로 활용된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10세기를 전후로 영산강과 나주를 오갔던 고대 목선인 '나주선'을 연말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나주선'은 길이 29.9m, 너비 9.9m, 높이 3.16m에 95t급, 승선 인원

은 96명으로 지난해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최근 '청해진 선박연구소'에 제작을 의뢰했다.

이 배는 지난 2004년 4월과 지난해 3월 영산강 영산강 바다에서 목선 만곡부(漕曲部)와 결판, 나무못 등이 발견된 고선박을 컴퓨터 3차원 분석 등을 통해 복원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 선박은 고려초 곡물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조

운선(漕運船)인 초마선으로 추정됐다.

시는 발굴된 목선을 토대로 복원하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터를 장착한 관광 유람선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 하부(선실)에는 홍보영상실과 기념품 판매코너 등이 설치되며 접이식 돛을 설치, 교량 통과에도 대비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목포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 완전 퇴치

산림청, 유달산 등 전국 6곳 청정지역 지정

지난 2001년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던 목포지역이 올해부터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이 목포시 유달산·율도·장좌도·교하도 4개소(20ha) 등 전국 6개 시·군·구 지역을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목포 유달산 등은 지난 2001년 10월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한 뒤 지난

2007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해 6월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최종 심사를 거쳐 청정지역으로 확정됐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은 길이 1mm가 안될 정도로 작지만 소나무 수액 이동 통로를 막기 때문에 한번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한다. 재선충병 청정지역은 재선충병이 발생, 완전방제 후 2년간 다시 발생하

지 않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며 지난 2008년 전국 5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첫 선포된 이후 올해까지 전국 1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돼 정상적인 소나무 조경수 이동과 산림경영 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향후 3년간은 재선충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주변지역 소나무숲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김지용기자 dok2000@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경찰학원의 합격프로젝트) featuring a graduation ceremony and exam preparation services.

Advertisement for Land3 Public Auction School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offering nationwide 100% pass guarantee and a 100% national subsidy for the 1st 4 days of the course.

Large advertisement for National Public Auction (국민법률경매) listing various auction items and their details, including land parcels and vehicles.